

## 도잔 신사

1600년대 후반, 아리타의 사라야마 다이칸(지방관)의 명으로 이 신사가 세워졌습니다. ‘아리타 사라야마 소묘 하치만구’로 창건된 이 신사에는 전설 속의 오진 천황과 나베시마 나오시게(1538~1618)가 모셔져 있습니다. 1603년 도쿠가와 막부 설립으로부터 4년 뒤인 1607년에 사가번을 통치한 나베시마 가문 당주 나오시게는 1590년대에 조선인 도공을 사가로 데려온 다이묘(영주)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1871년에 이 신사는 말 그대로 ‘도기 산의 신사’를 뜻하는 스에야마(陶山) 신사로 개명되었습니다. 현재의 애칭인 ‘도잔 신사’는 ‘스에야마’라는 한자를 다른 방식으로 읽은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.

1917년, 가나가에 산베에(통칭:이삼평)(~1655년)로 알려진 조선인 도공의 기념비가 신사에 세워졌습니다. 가나가에 산베에(통칭:이삼평)는 1600년대 초에 이즈미야마에서 도석을 발견했다는 전설로 아리타 지역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. 가나가에 산베에(통칭:이삼평)의 공적은 매년 5월 4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개최되는 아리타 도자기 시장과 함께 기려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기념비 아래에 모여 ‘일본 자기의 시조’에게 감사를 표합니다.

도잔 신사의 또 다른 주요 축제로는 매년 10월 16일에 열리는 아리타쿤치가 있습니다. 신여라고 불리는 이동식 신사가 인근 8개의 각 지구를 행진합니다. 이 축제의 일부인 사라오도리(접시 춤)에서는 무용수가 자기로 된 작은 접시 2개를 각 손에 들고 캐스터네츠처럼 쳐서 소리를 냅니다.

경내에서는 1888년에 세워진 큰 도리이와 1887년에 이마에몬 가마에서 제작하여 아카에마치 지구에서 기증한 고마이누(한 쌍으로 놓여진 사자 모양의 액막이 동상) 등 자기로 된 여러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.

또한, 경내에서는 선로가 지나는 보기 드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. 단, 전철이 통과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므로 선로 내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.